

‘신’연구분야로서의 통번역습득론

정혜연
(한국외대)

1. 통번역습득론이란

번역, 통역은 흔히 전문직으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통번역을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전문직이란 보통 그 직업에 필요한 행위를 기제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갖춘 직업을 말한다. 따라서 통번역사를 전문가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통번역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능력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실질적 대답을 제시할 수 있다. “통번역사는 외국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략기술, 통사기술 등 다양한 통번역기술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등의 처방적 해답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통번역을 실질적으로만 접근한다면, ‘모국어 수준’, ‘기술의 적절한 사용’ 등의 개념에 주관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있으므로, 통번역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를 객관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통번역사의 행위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기제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통번역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능력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 고찰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통번역사의 정신(블랙박스)에 담긴 내용물을 알기 위해 심리학적 고찰이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통번역능력에 대한 심층적 고찰이 이루어질 때, 교육분야 등에서 그 응용폭도 더욱 넓어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통번역습득’이라는 연구분야의 동향과 전망을 소개하고자 한다. ‘통번역능력습득론’ 혹은 짧게 줄여 ‘통번역습득론’이라고 명명할 이 연구분야에서는 통번역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떤 것이며, 그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심리학적 고찰을 통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통번역습득’ 개념은 ‘언어습득’의 병렬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심리언어학 분야에서 독립적 연구분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언어습득’분야에서는 언어능력과 언어습득의 원리, 과정을 인간의 정신적, 즉 심리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능력은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것인지, 인간의 인지발달과 언어능력발달 간에는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언어습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의 질문이 언어습득에 있어 지속적 연구과제가 되어왔다. 이러한 언어습득의 병렬개념으로서의 통번역습득 역시 통번역능력의 정의, 그 습득과정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단, 언어습득과는 달리, 통번역습득은 언어 이상의 능력이 관여된 과정이므로 심리언어학의 범주를 넘어선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통번역습득을 신경, 인지, 감성, 그에 따른 행태 등 인간정신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로 규정하고자 한다¹⁾. 나아가 이 원리를 응용할 때에는 교육학적 접근도 가능하겠다.

2. 연구대상 정의

모든 학문적 고찰이 그러하듯 논지 전개에 앞서 우선 연구대상의 개념을

1) 이 중 통번역능력이 언어능력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는 본고에서는 심리학 내에서도 신경학, 인지심리학적 접근으로 출발하고자 한다.

정의하겠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통번역능력’, 그리고 ‘능력의 습득’에는 ‘통번역’, ‘능력’, ‘습득’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사용된다. 이 어휘는 모두 일상적 의미로 사용될 때 이해에 어려움이 없겠으나, 본고에서는 연구목적과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개념을 보다 정확히 정의하고자 한다.

2.1 통번역

본고에서는 ‘통역’과 ‘번역’을 통칭하는 상위개념으로 ‘통번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통번역습득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본고에서 ‘통역’과 ‘번역’을 하나로 통합한 ‘통번역’이란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은 본고가 통역과 번역의 습득행위를 근본적으로 유사한 행위라고 본다는 입장을 전제로 한다. 통역과 번역이라는 행위는 행위에 필요한 능력뿐 아니라 행위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 언어능력의 높은 완성도를 전제로 하는 목적지향적 행위이며, 무엇보다 언어전환 행위라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일 것이다. 반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통역의 입력체와 출력체가 말의 형태인데 반해, 번역은 글이라는 점이다. 그 밖에도 시각 제약 여부와 면대면 상황 여부가 두드러지는 차이점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표면적 공통점과 차이점은 통역, 번역행위를 인지심리라는 보다 심층적 관점에서 분석할 때 보다 구체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개념을 한 연구 분야로 통칭함으로써, 통역과 번역 능력의 공통점을 규정하고 차이점을 밝히는 것 또한 통번역습득 분야의 연구주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2.2 능력

본고에서는 ‘능력’이라는 개념을 통번역사가 내재적으로 갖추고 있는 특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촘스키(Chomsky 1965)가 언어를 정의함에 있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언어 ‘능력(competence)’과 그 능력의 발현으로서의 언어사용 형태인 수행(performance)을 대비시켰듯이, 본고에서도 ‘능력’을 실제 통번역 상황에서 발현되는 통번역 행동의 결과가 아닌 그 통번역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특성으로서의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투리(Toury 1980) 역시 촘스키의 이론을 내세워 번역능력에 대한 기술적 정의가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츨스키(1967)의 경우, 인간은 누구나 언어습득기제(Language Acquisition Device 혹은 LAD)를 타고 나기 때문에, 적절한 언어자극을 받고 연습을 거치는 과정에서 언어습득기제가 발동해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고 말한다. 즉, 언어습득기제는 선천적이며 언어능력은 잠재적으로 타고난다는 의미이다. 본고의 통번역능력개념도 이와 유사하다.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잠재적으로 통번역습득기제(Translation Acquisition Device 혹은 TAD)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적절한 입력과 연습을 거치면 전문통번역사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 본고의 가설적 전제이다.²⁾

다시 말해 본고에서는 통번역능력은 다중언어자에게 내재적 능력이며 통번역능력습득기제는 선천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2.3 습득

본고에서 습득의 개념은 내재되어 있는 통번역능력을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넓은 의미에서 학습을 포함한다. 학습과 습득은 각기 인위적이고 자연적이라는 차이로 인해 엄격히 말해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통번역습득의 경우, 자연스러운 습득이 대부분인 모국어습득과는 달리, 자연스러운 습득(소위 ‘자수성가형 통번역사’)의 사례가 많지 않고, 학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통번역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을 하나의 연구분야로 바라보고자 할 때, 습득의 개념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두 개념 중, 비율이 높은 ‘학습’이라는 개념 대신, ‘습득’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통번역습득’이라는 연구분야가 이미 심리언어학 분야에서 확고한 연구분야로 자리잡은 ‘언어습득’의 병렬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습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습득이 이미 학습과 습득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언어습득의 하위 분야로 분류될 수 있는 제2어습득의 경우, 통번역습득과 마찬가지로 학습의 비율이 적지 않음에도 습득의 개념을 학습과 습득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이 가설에 대한 학술적 근거는 3장 참조.

3. 통번역능력의 이론적 근거

통번역행위를 위한 별도의 능력이 인지심리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또 통번역능력이 실제 존재하다면 그 특성과 형태는 어떠한가? 이 가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본고에서는 정신적 측면인 인지심리 구조에 대한 물질적 근거이랄 수 있는 신경언어학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가설에 대한 첫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3.1. 신경언어학적 근거

통번역행위를 기타 담화행위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 즉, 통번역사의 전문적 능력의 가장 큰 특징은 ‘언어전환능력’³⁾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이해능력(컨셉트⁴⁾ 구성 능력), 기억력, 발화능력(어휘 및 문법 능력) 등의 요소⁵⁾들은 통번역행위와 기타담화행위를 구분짓는 근본적 차이점이라기보다는 기타 담화행위에도 필요하지만 통번역행위에 더욱 크게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다른 요소보다도 언어전환능력은 내재적 통번역능력체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통번역능력의 존재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러한 언어전환능력에 대한 물질적 근거이다.

인간의 뇌에서 언어의 이해, 발화 이외에도 언어전환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위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카우더스(Kauders 1929)와 베이라크(Veyrac 1931)에서 제기되었다. 카우더스는 뇌손상 후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3) 여기서 ‘언어전환’이란 통번역전략적 측면이 배제된 순수한 코드스위칭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 한 컨셉트를 사이에 두고 출발어휘와 도착어휘가 연결,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어휘 상기와 문법을 통한 어휘 조합을 의미하는 ‘발화’와 구분될 수 있다.

4) 본고에서는 텍스트 외적 상황을 인지하고 텍스트를 이해한 결과, 인지심리적으로 형성되는 정신적 산물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5) 이 이외에도 통번역사 전문 능력으로 거론되는 요소는 많다(Neubert 2000, PACTE 2003 등). 그 중 자주 거론되는 ‘담화조절능력(화용론적 능력, 혹은 텍스트능력)’은 본고의 경우, 언어 입력체뿐 아니라 모든 사회문화적 상황요소를 파악해 컨셉트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에서 크게 ‘이해능력’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언어전환하고자 하는 강박증세를 보이는 환자의 사례를 보고한 바 있으며, 베이락의 경우, 모국어로 간단한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 환자가, 같은 문장을 외국어로 언어전환 할 수 있었다는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언어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언어전환이 가능하다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언어전환담당 부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설이 제시된 것은 야콥슨(Jakobson 1971)에 이르러서였다. 그는 뇌손상 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언어전환을 하지 못하게 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뇌피질의 측두엽-두정엽 접합부위(temporal-parietal region)가 통번역을 담당하는 부위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부위는 일반적으로 언어의 계열적 생산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 부위가 손상되면 단언어 사용자의 경우, 한 언어의 동의어, 반의어 등 연상어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야콥슨은 다중언어사용자의 경우, 이 부위 손상시 언어전환능력에 손상이 온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한편, 파브로(Aglioti&Fabbro 1993, Fabbro&Paradis 1995)의 경우에는 전두엽 기저핵 신경절(basal ganglia-subcortical structure of frontal lobe system)이 언어전환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다양한 연구에서 해당 부위 손상이후 외국어로의 언어전환은 가능하나 모국어로의 언어전환이 불가능해진 환자를 예로 들면서 다중언어사용자 두뇌에는 언어전환구조가 별도로 존재하며 이 구조는 언어별, 보다 정확히 말해 언어방향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각 모듈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활동한다고 하였다. 또 파라디(Paradis et. al. 1982, Paradis 1993)가 제시한 소위 ‘모순적 번역(paradoxical translation)’의 예도 인간두뇌 내 언어전환구조의 존재 가설을 뒷받침하는 예로 거론된다. 그는 불어를 구사하지 못하게 된 실어증 환자가 영어에서 불어로의 통역은 문제없이 해내는 사례와 함께, 뇌손상 이후 모국어로의 통역보다 언어구사력이 떨어지는 외국어로의 통역을 더 잘 하게 된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두뇌에는 단일언어 이해와 발화되는 구분되는 언어전환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는 언어1의 이해영역, 언어2의 이해영역, 언어1의 발화영역, 언어1→언어2의 언어전환영역 등으로 세분화된다고 주장하였다. 파브로와 파라디는 그 이후에도 언어전환을 위시한 통번역을 담당하는 뇌부위와 그 구조를 밝혀내고자 노력하였고, 다로&파브로(Darò&Fabbro 1994)와 파라디(2000)에서는 통번역전담 시스템과 동시통역 과정을 각각 신경언어학적 관점에서 모델화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통번역의 핵심능

력인 언어전환이 뇌구조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신경학적 근거는 통번역능력이 인간의 정신구조에 존재할 수 있다는 인지심리적 근거로도 볼 수 있겠다.

3.2 통번역능력 인지심리모델(CMIT)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두뇌에서 언어전환을 전담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언어전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이 존재한다는 가설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두뇌의 언어전환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통번역의 핵심 능력 존재의 육체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통번역능력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어전환 외에도 통번역에 개입하는 다른 인지적 요소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이러한 인지적 요소에는 앞서 언급한 이해능력, 기억력, 발화 능력이 있겠는데, 이 모든 구성요소가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다중언어자의 내재적인 통번역능력 인지심리모델(Cognitive Model of IT-Competence, 이하 CMIT)을 구성한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이들 요소는 통번역교육을 통해 후천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이들을 CMIT의 구성요소라고 정의하고 나면, 이들 구성요소가 어떠한 형태로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 볼 차례이다. CMIT의 구조를 밝히는 데에 있어서는 파브로&그랜(Fabro&Gran 1994)와 파라디(2000) 등의 신경언어학적 연구를 참조해볼 수 있다. 파브로&그랜은 신경언어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인간의 언어시스템이 3차원의 위계질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1단계에서는 모든 언어영역을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2단계에서는 이 언어능력이 이해, 발화, 쓰기, 읽기 등으로 세분화된다고 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2단계가 더 작은 모듈로 세분화되어 자음쓰기, 모음이해 등의 영역으로 나뉜다고 하였다. 파라디(2000) 역시 언어시스템의 다층구조설을 수용하면서, 상부구조에서 언어시스템 전체를 관장하는 중앙집행시스템이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다중언어자의 언어시스템은 2단계에서 각 언어별로 나뉘고, 개별 언어는 각기 고유의 시스템을 갖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한편 다로 &파브로(1994)는 배들리(Baddeley 1990)를 근거로 통역사의 기억구조를 모델링함으로써 CMIT의 기억요소에 대해 일련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다중언어자의 기억은 언어전환시스템을 사이에 두고, 작업기억과 장기기억

으로 나뉠 수 있으며, 장기기억은 다시금 상황기억→의미기억→절차기억(이 순서대로 공고화된)으로 단계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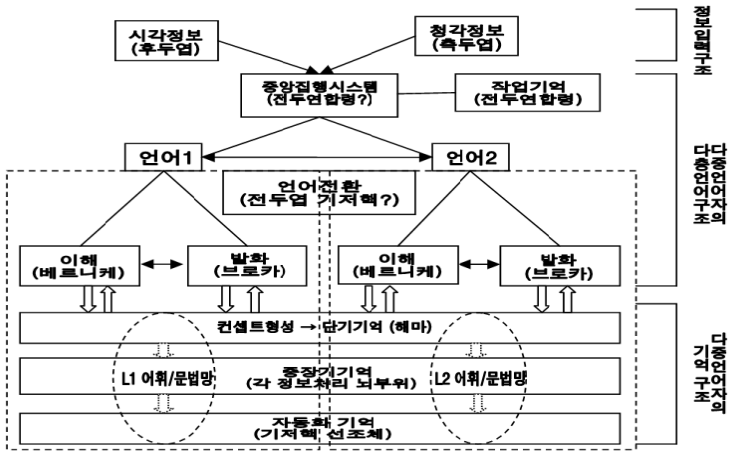
이상을 종합해 볼 때 CMIT은 언어시스템 전체를 관장하는 중앙집행시스템을 포함, 다층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중앙집행시스템이 가장 상부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하 하부구조는 각 언어별로 구분되며, 여기에서 이해, 언어전환, 발화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각종 컨셉트는 기억의 형태로 저장되는데, 이 기억은 서술(declarative)기억의 경우, 작업기억→단기기억→중장기기억 순서로 공고화되며⁶⁾ 절차기억(procedural)의 경우, 절차기억(자동화)의 과정을 추가로 거친다. 앞서 소개한 파브로, 파라디의 연구 이외에도 최근 신경언어학적 연구⁷⁾가 지금까지 CMIT의 구성요소로 소개된 개개의 모듈 구조가 실제 뇌구조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중 언어전환영역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설명한 바 있고, 작업기억의 경우, 전두연합령이, 단기기억은 내측두엽에 위치한 해마에서 담당한다. 또 일단 해마에 기억되었던 단기기억은 처음 정보의 수용, 처리가 이루어진 각 뇌부위에 반추되어 저장된다. 절차기억의 경우에는 기저핵의 선조체(striatum)에서 자동화된 기억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볼 때, CMIT는 언어전환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중언어체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체 언어시스템의 일부로서 여러 개의 언어가 개입한 만큼 다층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래 [그림1]에서 CMIT의 구조를 볼 때, 내재적이고 할 수 있는 통번역능력은 첫째, 시각, 청각 입력을 종합하여(사회문화적 상황 인지와 텍스트 이해) 컨셉트를 구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능력, 둘째, 이 컨셉트를 사이에 두고 언어1과 언어2를 연계하여 언어전환을 할 수 있는 능력, 셋째, 컨셉트에 맞추어 장기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어휘와 문법을 상기하여 어휘를 문법에 맞게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중 두 번째 특징만이 순수하게 통번역능력의 특징이라 할 수 있고, 첫 번째, 세 번째 특징은 언어능력과 공유하는 부분이다. 이 첫 번째, 세 번째 특징은 사실 언어사용자라면 정도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다중언어자는 후천적 교

6) 작업기억이 단기기억, 중장기기억 순서로 공고화되기도 하나, 기억에 따라 단기기억으로 저장되었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즉, 이 세 종류의 기억은 각각 병렬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 베어&코너스&파라디소(Bear&Connors&Paradiso 2009)

7) 베어&코너스&파라디소(2009)

육에 의해 이를 강화할 때보다 정확한 의미의 통번역능력을 갖게 된다.



[그림 1] 통번역능력의 인지심리적 모델(CMIT)

이상에서 볼 수 있듯 다중언어자라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번역능력은 전문적인 통번역교육을 통해 전반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먼저 다양한 텍스트를 접하고 컨셉트를 형성하는 훈련을 하면서 정보처리능력, 즉 이해능력이 향상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컨셉트를 연계, 체계화하는 훈련이 이루어지면서 기억력이 함께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컨셉트는 신경학적으로 볼 때 다양한 정보로 이루어진 망(네트워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복훈련 등을 통해 망을 구성하는 노드의 연결성이 높아질 때 이해와 기억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또 지식의 일부로서 어휘도 일종의 컨셉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번역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훈련을 통해 어휘가 확장되면, 어휘망도 확대된다. 다중언어자의 경우, 컨셉트를 사이에 두고 처음에 불균형하던 언어망1과 언어망2가 어휘확장을 거쳐 균형을 이루게 되고, 언어망1과 언어망2의 쌍방간의 연계도도 높아질 수 있다. 즉, 여러 개의 언어망의 균형화와 연계성 증가로 언어1, 언어2의 등가어휘 간에 언어전환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통번역과정 중 어휘상기와 문법사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발화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언어습득론의 행동주의에서 주장하던 반복학습 등의

훈련은 내재적 통번역능력을 후천적 통번역능력으로 강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통번역습득론 - 왜 새로운 분야인가?

이제 전문적 능력으로서의 통번역능력이 존재한다는 근거는 간단하게나마 제시되었다. 이러한 통번역능력체계와 습득과정을 밝히는 작업은 오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통일되고 체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것이 통번역 습득론이라는 별도의 분야가 필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통번역습득론을 ‘새로운’ 분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통번역사의 능력에 관한 고찰은 분명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통번역에 관련된 연구 자체가 시작된 데에는 통번역능력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까지 했던 것이 사실이다. 통번역 연구 초기 발표된 통번역교육 관련 연구를 보면, 통번역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훌륭한 통번역사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할 사항들을 처방적 문체로 나열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통번역능력과 그 습득 과정에 내재된 원리를 고찰했다기 보다는 통번역 교육을 목적으로 통번역교육의 주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에베르(Herbert 1952)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처방적 연구가 보다 일반화된 형태는 의미통번역론을 주창한 셀레스코비치(Seleskovitch 1978)나 일반통번역론의 저자 아만&페어메어(Ammann&Vermeer 1990)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통번역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테크닉’의 개념보다 일반화된 ‘능력’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들의 연구 역시도 이들이 교육을 통해 얻은 직관을 서술했다는 점에서 언어 습득 분야에서 볼 수 있는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통번역능력에 대한 보다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970-1980년대 텍스트언어학, 심리언어학의 영향으로 다양한 통번역 모델링이 시도되면서 부터이다⁸⁾ 당시 연구의 초점은 통번역사의 전문적 능력보다는 통번역의 과정을 살펴

8) 대표적 예로는 모저-메르세르(Moser-Mercer 1976), 질(Gile 1985) 등을 들 수 있다.

보는데 있었지만, 이들 모델에서 볼 수 있는 통번역의 각 단계는 최근 통번역능력 모델의 모듈과 비교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모델링 시도가 통번역습득 연구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즉, 통번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심리언어학적으로 고찰하면서, 통번역능력에 대한 심층적 고찰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셈이다. 하지만 이들 모델은 신경언어학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고, 경험연구를 통해 검증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언어습득론이 신경언어학적 연구를 수용하고, 장기관찰과 다양한 실험 등의 경험연구로 여러 가설을 검증, 혹은 반증하면서 발전해 온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물론 통번역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관련해 경험연구가 없던 것은 아니다. 그 연구대상이 번역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크링스(Krings 1986), 쿠스마울(Kußmaul 1991), 하이덴(Heiden 2005) 등의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소규모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고 각기 통번역능력의 한 측면만을 조명했다는 한계가 있다(PACTE 2003 46). 또한 이들 연구는 통번역능력을 정의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이 능력이 어떻게 습득되는지에 대한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번역능력의 습득의 문제는 언어습득에서와 마찬가지로 장기간에 거친 종단연구가 필요한 만큼 실행이 어려웠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스켈라인넨(Jääskeläinen 1989), 티르콘넨-콘디트(Tirkkonen-Condit 1990) 등 소수의 연구에서 통번역능력 습득과정과 관련된 경험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와 대비하여 ‘통번역습득론’ 연구분야가 추구하는 연구방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연구분야로서의 ‘통번역습득론’이 추구하는 연구방향은 처방적 성격의 이론화가 아니라, 다양한 학문분야(심리학, 신경학, 사회학, 문화학, 교육학 등)의 연구결과를 수용하면서 포괄적 경험연구를 통해 통번역 능력을 정의하고 습득과정을 이해하는 것, 나아가 이를 통번역교육 등에 응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기서 포괄적 경험연구란 다양하고 규모가 큰 관찰/피험집단을 대상으로, 종단적, 횡단적 연구 및 관찰연구, 실험연구를 보완적으로 실시한다는 의미이다. 이 중 실험연구는 특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관찰연구는 이론의 일반화를 위해 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통번역습득론’의 연구 성격은 기술적, 포괄적, 학제적, 경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5. 연구범주 및 발전가능성

‘언어습득론’의 병렬개념으로서의 ‘통번역습득론’은 언어습득론 만큼이나 다양한 하위 연구분야를 가질 수 있다. 다문화통역⁹⁾, 문학번역과 같이 통번역 하위유형에서의 통번역능력 습득을 연구할 수도 있고, 넓게는 학습자나 교사의 동기부여, 학습환경 연구, 심리연구 역시도 통번역습득론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점에서 기존 통번역학에서 ‘통번역교육’ 연구분야로 분리되던 통번역 학습전략 이라든가 교수법 연구 등도 넓은 의미의 통번역습득론(응용분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듯 이론과 응용분야에 걸쳐 넓은 연구범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통번역습득론’이 통번역학 내에서 하나의 독립된 연구분야로서의 존재, 발전할 수 있는 이유이다. 또 ‘통번역습득론’에서는 기존 ‘언어습득론’과 차별되는 연구방법 및 도구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통번역습득론이라는 독립연구 분야의 존재 타당성에 기여하고 있다.

‘통번역습득론’은 통번역능력과 그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이니 만큼, 그 하위분야를 가장 먼저 능력정의와 습득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우선 통번역능력과 관련해서는 습득대상으로서의 통번역능력은 어떠한 것인지, 즉, 언어습득의 최종목표가 ‘해당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정상 성인의 완성된 언어체계’라고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통번역습득자의 최종습득목표로서 통번역능력의 체계를 되도록 모순없이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우선적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언어와 통번역에 관련된 신경언어학적 연구는 통번역능력에 대한 심리적 연구에 좋은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통번역능력에 대한 모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이를 다시 통역능력과 번역능력으로 분류해 통역사가 갖는 능력과 번역사가 갖는 능력의 공통점,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다. 혹은 통역, 번역을 더욱 세분화해 순차통역, 문학번역 등 통번역의 하위유형에 필요한 능력에 대해 연구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같은 통역능

9) 통번역계에서 ‘지역사회통역’, ‘대화통역’으로 불리는 장기체류 외국인 대상의 실생활 통역을 말한다. 위의 개념들은 한국과는 다른 상황에서 발생한 개념이니 만큼 이를 번역하여 사용할 경우, 일반인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민결혼가정을 지칭하는 ‘다문화가정’이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요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역을 ‘다문화통역’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력이라도 사회문화적 요소의 영향이 적은 회의통역과 그 영향이 지대한 다문화 통역은 요구되는 능력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문학번역과 기술번역에 있어서의 심층적 차이를 밝히는 문제도 흥미로울 수 있다.¹⁰⁾

통번역능력의 특성에 대한 연구 역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통번역능력이 해리스(Harris 1977)나 노이베르트(Neubert 2000)가 주장했듯이 다중언어자라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내재적 능력인지, 그렇다면 그 내재성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나아가 다중언어자와 통번역사 능력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고찰해 볼 수 있다.

둘째, 이렇게 정의된 통번역능력이 어떻게 습득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밝히는 연구 역시 중요한 하위분야로 분류될 수 있다. 피아제(Piaget)가 언어습득과 관련해 아동들의 인지발달과정을 감각운동시기, 전조작시기 등 단계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특징을 정의했듯이, 통번역습득에서도 통번역능력의 습득과정을 발달상의 특징별로 세분화하여 여러 단계(예: 어휘균형기, 담화조절기 등)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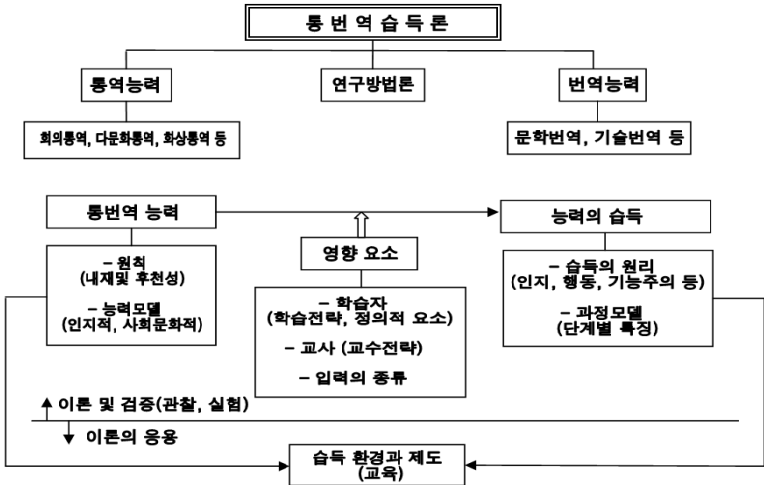
셋째, 습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연구해 볼 수도 있다. 습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학습자와 교사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전자와 관련해서는 학습자의 인성적(적극성, 불안감 등) 요소, 지적 요소, 학습전략을, 교사와 관련해서는 교수전략 등을 영향요소로 꼽아볼 수 있다. 습득과정의 영향요소와 관련하여 특히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입력의 종류이다. 언어습득에서는 주변 모국어화자의 언어사용이나 피드백 등이 주요 입력이 될 수 있다면, 통번역습득에서 자극에 해당되는 입력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하는 문제이다. 현재 대부분의 통번역교육에서는 번역, 통역비평과 같은 피드백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이외에도 통번역 시범을 지속적 입력으로 제공할 때 통번역교육에 변화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입력이 능력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입력형태와 그 입력형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듯하다.

이상에서 본 통번역능력과 통번역습득과정 연구는 이론적 연구이다. 관찰을

10) 이들 통번역 하위유형의 능력문제는 위에서 제시한 인지심리모델(CMIT)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니 심리의 틀 내에서도 보다 사회문화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통한 기술적 이론과 이 이론의 검증이 그 내용이다. 통번역습득론의 네 번째 분야로는 이 이론을 응용하는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기존의 ‘통번역교육’ 연구를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는 효과적으로 통번역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환경과 교육행정, 교과개발, 교육평가 등 제도적 문제를 폭넓게 다루어볼 수 있다. 이론 분야에서 통번역능력을 심도있게 정의하고, 그 습득과정을 기술적으로 고찰, 경험적으로 검증했을 때, 그 응용의 깊이와 넓이의 폭도 커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번역습득론만의 연구방법론도 주요 연구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10년 이상 관련연구가 진행되면서 Translog나 TransCorrect 등 관련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언어습득론 등 심리언어학적 연구방식을 응용한 다양한 연구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통번역습득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통번역능력과 습득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방식, 실험도구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방식은 역으로 언어습득론 등 다른 학문 분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2] 통번역습득론의 연구범주

6. 국내외 연구사례

6.1 해외 연구사례

‘통번역습득론’이라는 명칭으로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해외의 경우, 이미 1990년대부터 통번역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보다 심층적 연구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번역능력을 심리학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투리(1980)에 언급되었고, 그 이후에도 통번역 모델링 등 통번역과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통번역능력을 처방적 방식이 아니라, 기술적 방식에서 정의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1990년대 말부터 관련 프로젝트가 결성되기 시작했는데, 스페인 교육문화부 지원으로 1998년 출범한 PACTE(Process in the Acquisition of Translation Competence and Evaluation)가 대표적인 예이다. PACTE는 1998년 출범하여 2008년까지 매년 다양한 학술지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2005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5개의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유럽지역 내에서는 덴마크의 TRAP(Translation Process)과 노르웨이에서 시작해서 현재 유럽8개국에 참여하는 EXPERTISE (Expert Probing through Empirical Research on Translation Processes)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한편, 브라질에서도 CORPRAT(Corpus on Process for the Analysis of Translation), PRONIT(Process and Product in Translation Investigation) 두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어, 경험연구를 통해 통번역과정을 조망하고 이를 통해 통번역능력체계를 정의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온라인을 통해서도 꾸준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어 관련자료를 찾아보기 쉬운 PACTE를 중심으로 이들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우선 프로젝트의 명칭을 보면 PACTE를 비롯한 기타 프로젝트는 모두 통역을 배제한 번역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번역연구가 통역연구보다 이론 기반이 튼튼하고 자료수집면이나 관찰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 PACTE의 경우, 기존 연구나 인접학문에 기대기보다는, 다시 말해 학제연구를 추구하기 보다는 독자적 이론과 가설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PACTE의 연구에 독자성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인접학문과의 연계성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PACTE의 이론에 비판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PACTE는 초기 연구에서 통번역능력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이를 하나의 모델로 가설화하였다. 2000년-2002년 사이에는 번역학생과 전문번역사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통번역능력에 대한 가설을 검증, 2003년, 2005년 이 가설모델을 수정한 상태이다. 2008년 논문에서는 이 1차 검증 실험방식과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에서도 알베스(Alves 1995) 등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브라질의 경우, 온라인으로 공개된 자료가 많지 않아 현재까지는 기억(memory)와 추론(inference)을 번역능력의 양대 능력으로 보는 가설과 2개(전문번역사, 번역과 상급생)의 실험군 1개의 통제군(번역반 초급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정도만 알 수 있다.

이렇듯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통번역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구방식도 다각화되고 있다. 직접관찰이나 설문, TAP 등과 같은 고전적 방식 이외에도 Proxy와 같은 컴퓨터 모니터링 방식을 번역과정 관찰에 이용할 수 있고, 번역과정 관찰을 목적으로 한 Translog나 TransCorrect와 같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통번역과정 연구방식이 이처럼 다양화됨에 따라 번역학에 TAP방식을 도입했던 크링스는 2005년 논문을 통해 통번역과정 연구방식을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으로 나누어 정리, 소개하기도 하였다.

6.2 국내 연구사례

국내에도 통번역능력, 혹은 습득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이를 ‘통번역습득론’이라고 분야화하기에는 통일성이 없어 보인다. 국내 통번역능력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해외 연구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처방적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통번역능력에 대한 기술적, 경험적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다. 통번역능력에 대한 기술적 연구로는 최미경(2003), 정혜연(2008), 정혜연(2009)을 들 수 있으며, 통번역능력 관련 경험연구(사례연구)로는 김련희(2001), 정혜연&홍설영&최은아&김영주(Chung&Hong&Choi&Kim 2009)가 있다.

이 중 처방적 연구는 그 이론의 응용폭이 협소해 한계가 있고, 경험기술적 연구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사례연구인 경우, 이론의 일반화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은 통번역습득이 하나의 학문연구분야로 자리잡아 관련 연구가 다양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질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번역능력을 정의하고 습득과정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학문연구는 최근 10년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인 만큼 국내에서도 통번역 원리, 교육과 관련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일만한 가치가 있다.

7. 국내연구의 필요성

주지했듯 통번역습득론 관련 연구는 이미 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PACTE의 경우, 정부 지원 프로젝트인 만큼 연구진행 과정이 빠르고 실험 규모도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해외에서 이미 연구가 오래전에 시작되고 그 결과가 벌써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국내에서도 관련연구가 필요할까? 그렇다면 국내 연구는 해외 기존연구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병렬분야인 언어습득 분야를 살펴보면 얻을 수 있다. 언어습득 분야는 제1언어습득의 경우, 본격적 연구가 시작된 지 이미 한 세기가 지나고 있지만 매 시기 새로운 언어습득 원리가 제시되고(행동주의-보편주의-인지주의-기능주의 등), 각종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각 습득연구가 각 언어마다 이루어짐으로써 (소위 ‘교차언어연구’), 언어습득원리의 보편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통번역습득론과 관련해서도 우선 국내연구가 통번역습득론의 보편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연구가 활발한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 대체로 어순이 비슷한 유럽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한영, 혹은 한독 등 상이언어쌍을 대상으로 유사 연구를 진행한다면 통번역습득 원리의 보편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차언어쌍 연구). 둘째, 해외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통번역능력 모델을 세웠다고는 하나, 학제연구의 성격이 비교적 미약함을 볼 수 있다(PACTE 및 브라질

사례). PACTE의 경우, 심리학의 연구결과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번역학의 선행 연구를 이론의 주요 기반으로 삼고 있는데, 번역능력의 상당부분을 언어능력과 언어외적능력(문화, 주제지식 등)이 차지하는 점을 생각할 때, 언어습득론, 신경언어학, 이중언어능력 연구, 나아가 문화학과 교육학의 연구 등을 충분히 고찰하는 것이 보다 타당성 있는 이론 성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점에서 국내 연구가 해외연구의 미약한 학제성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튼튼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연구는 통번역습득론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도 한 몫을 할 수 있다. 해외 연구는 현재 통번역능력 모델을 세우고 그 모델을 검증하려는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통번역습득론을 언어습득론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경우, 연구분야는 보다 확장될 수 있다(위의 [그림2] 참조). 국내연구는 국내 실험연구를 통해 해외연구의 결과를 검증하는 한편, 통역능력연구나 문학번역능력연구 등 하위분야를 연구대상으로 해보든가, 혹은 습득관련 전제와 모델을 세우는데 앞장서 볼 수도 있겠다. 마지막으로 통번역습득론의 국내 연구는 국내 통번역학계에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언어습득론 연구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과의 자료도 공유하고 합동 프로젝트도 출범할 수 있었듯이 ‘통번역습득론’도 하나의 연구분야로 정착된다면 각 사례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하나의 코퍼스로 묶어 공유하는 방안이나, 여러 학교의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피험자 확보 등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봉균 외 역 (2009) 『신경과학(제3판)』, 바이오메디북.
- 김련희 (2001) 「번역사와 언어학습자의 영한번역과정」, 『국제회의통역과 번역』 3: 59-86.
- 김련희 (2006) 「번역능력의 구성요소: 원문어휘지식과 원문주제지식」, 『국제회의통역과 번역』 8(2): 31-60.
- 최미경 (2003) 「B언어통역에서 인지적요소의 역할과 습득」, 『통번역학연구』 7: 209-231.

- 정혜연 (2008) 「통번역습득」, 『한국독어독문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집』, 55-64.
- 정혜연 (2009) 「문학번역능력과 습득-심리학적 관점」, 『세계문학비교연구』 26: 269-301.

Aglioti, Salvatore and Franco Fabbro (1993) ‘Paradoxical selective recovery in a bilingual aphasic following subcortical lesions’, *NeuroReport* 4: 1359-1362.

Alves, Fábio (1995) *Zwischen Schweigen und Sprechen*, Hamburg: Dr. Kovac.

Amman, Margret and Hans-Jochen Vermeer (1990) *Entwurf eines Curriculums für einen Studiengang Transtologie und Transtorik*, Heidelberg: Julius Groos.

Baddeley, Alan David (1990)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working memory’ *Neuropsychological Impairments of short-term memory*, Cambridge: Cambridge UP, 54-73.

Chomsky, Noam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UP.

---- (1967) *The General properties of language*, Clark Milikan and Frederick Darley (eds), New York: Grune and Stratton.

Chung, Hye-Yeon, Hong Seol-Young, Choi Eun-Ah and Kim Young-Joo (2009) ‘Korean Contribution to Translation Competence Research: Empirical research on the translators’ instrumental competence’,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tudies*, HUFS GSIT, 97-112.

Darò, Valeria and Franco Fabbro (1994) ‘Verbal memory during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pplied Linguistics* 15(4): 365-381.

Fabbro, Franco and Laura Gran (1994) ‘Neurological and neuropsychological aspects of polyglossia and simultaneous interpretation’, *Bridging Gap*, Amsterdam: Benjamin Pub., 273-317.

Fabbro, Franco and Michel Paradis (1995) ‘Differential impairments in four multilingual patients with subcortical lesions’, *Aspects of Bilingual*

- Aphasia*, Michel Paradis (ed.), 139-176.
- Gile, Daniel (1985) 'Le Modèle d'efforts et l'équilibre en interprétation simultanée', *Meta* 32(1): 44-48.
- Harris, Brian (1977) 'The importance of natural translation', *Working Papers on Bilingualism* 12, 94-114.
- Heiden, Tanja (2005) 'Blick in den Blackbox: Kreative Momente im Übersetzungsprozess: eine empirische Studie mit Translog'. *Meta* 50(2): 448-473.
- Herbert, Jean (1952) *The Interpreters' Handbook: How to Become a Conference Interpreter*, Genève: Librairie de l'Université.
- Jääskeläinen, Riitta (1989) 'Translation Assignment in Professional Versus Non-professional Translation: a think-aloud protocol study', *The Translation Process*, Seguinot, C. (ed.), 87-98.
- Jakobson, Roman (1971) *Studies on Child Language and Aphasia*, Hague: de Gruyter.
- Kauders, Otto (1929) 'Über polyglotte Reaktionen bei einer sensorischen Aphasie',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Neurologie und Psychiatrie* 122: 651-666.
- Krings, Hans-Peter (1986) *Was in den Köpfen von Übersetzern vorgeht*, Tüb.: Gunter Narr.
- (2005) 'Wege in Labyrinth - Fragestellungen und Methoden der Übersetzungsprozessforschung im Überblick', *Meta* 50(2): 342-358.
- Kußmaul, Paul (1991) 'Creativity in the Translation Process: Empirical Approaches', *Language Arts and Disciplines*, van Leuven-Zwart, K. et.al. (eds.), 91-101.
- Moser-Mercer, Barbara (1976) *Simultaneous Translation*, Dissertation, Uni. Innsbruck.
- Neubert, Albrecht (2000) 'Competence in Language, in Languages, and in Translation', *Developing Translation Competence*, Christina Schäffner and Beverly Adabs (eds.), 3-18.

- PACTE (2003) ‘Building a Translation Competence Model’, *Triangulating Translation*, Fábio Alves (ed.), 43-68.
- Paradis, Michel (1993) ‘Multilingualism and aphasia’, *Linguistic disorders and pathologies*, Blanken Gerhard et al. (eds.), 278-288.
- (2000) ‘Prerequisite to a study of Neurolinguistic Processes involved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Language Processing and Simultaneous Interpreting: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Brigitta Dimitrova et. al. (eds), 17-24.
- Paradis, Michel et. al. (1982) ‘Alternative antagonism with paradoxical translation behavior in two bilingual aphasic patients’, *Brain and Language* 15: 55-69.
- Seleskovitch, Danica (1978) ‘Language and cognition’, *Language Interpretation and Communication*, David Gerver (ed.), 333-341.
- Tirkkonen-Condit, Sonja (1990) ‘Professional vs. Non-professional Translation: A Think-aloud protocol study’, *Learning, Keeping and Using Language*, Michael Halliday et. al. (eds), 381-394.
- Toury, Gideon (1980) *In Search of a Theory of Translation*, Tel Aviv: Tel Aviv UP.
- Veyrac, Guillaume-Julien (1931) ‘A Study of aphasia in polyglott subjects’, *Reading on aphasia in bilinguals and polyglotts*, Michel Paradis (ed.), 320-338.

[Abstract]

I&T Acquisition and Language Acquisition

Chung, Hye-ye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examined the area ‘Interpretation & Translation Acquisition’ as a parallel discipline to ‘Language Acquisition’, an established branch of Psycholinguistics. With regard to this “new” area this study aimed to provide answers for the questions including “what makes the interpreters/translators different from untrained multilinguals?” and “how does the system related to increasing I&T competence create professionals?”. To answer these questions, we first tried to prove the existence of I&T competence using recent neurolinguistic findings. As the next step we probed into psychological aspects to describe the I&T competence as a system. This kind of scientific approach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prescriptive theories aimed at improving I&T ‘performance’. All in all, as this paper has introduc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cipline ‘I&T Acquisition’ should be regarded as interdisciplinary, comprehensive, descriptive and empirical as its parallel area ‘Language Acquisition’.

▶ Key Words: I&T acquisition, descriptive, comprehensive, empirical, interdisciplinary

정혜연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강사

johanna2000@hanmail.net

관심분야: 인지심리학, 통번역학

논문투고일: 2010년 1월 25일

심사완료일: 2010년 3월 02일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09일